

큰물서 새 먹거리 찾는다... 지방금융, 동남아 '정조준'

캐피탈 연계 '소액대출 상품' 집중
BNK금융 9곳에서 현지법인 운영
DGB금융·JB금융 캄보디아 공략

지방금융그룹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해외사업에 적극적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저성장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창출을 위해 선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방금융그룹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캐피탈사와 연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액대출상품에 집중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BNK캐피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총 9곳의 지점 및 현지법인,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BNK캐피탈은 지난해 11월 카자흐스탄에 현지법인을 개소하고 지난 1월에는 캄보디아법인(BNK·BNK캄보디아)에 148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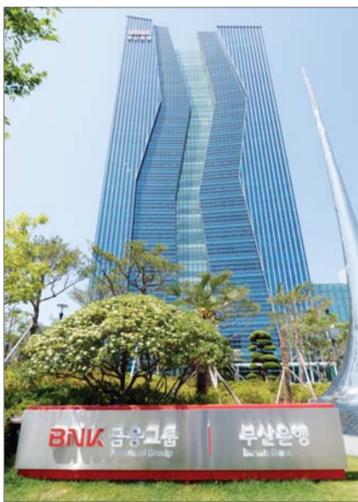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DGB금융그룹 사옥.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해외법인의 경우 자리를 잡기 전까지 적자를 기록하지만 금리나 인구조로 보았을 때 충분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DGB금융그룹의 대구은행도 지난해 초 창립 이후 첫 해의 현지법인을 캄보디아에 설립한 데 이어 호치민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 사무소를 개소한 상태다.

최근 베트남을 다녀 온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젊은층 인구가 많은 베트남의 발전 속도가 우리나라의 1980년대 중반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천지개벽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앞으로 뚜렷한 영업성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JB금융그룹도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다.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산업은행 지분율은 전북은행 50%, JB우리캐피탈



부산광역시 국제금융로 BNK금융그룹 사옥.

10%, 아프로서비스그룹이 40%다.

지방금융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미얀마 지역의 소액대출 분야다. 미얀마는 국민 소득이 낮아 은행대출이 어렵다. 이에 따라 소액대출 기업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얀마는 서민대상 대출금리가 높아 소액대출금리는 평균 연 30%(월 2.5%)인데다 상

환율(98%)이 높아 순이자마진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설립된 JB금융그룹의 JB우리캐피탈 미얀마 소액대출금융기관(MFI)은 연내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MFI는 미얀마 농업인 등의 소액대출 수요로 인해 분기별 알짜 실적을 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얀마는 인구가 6000만명이 넘고 자원이 풍부해 매년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소액대출 영업으로 미얀마 현지에서 노하우를 쌓으면 향후 은행 현지법인 설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출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지방금융그룹의 해외진출확대는 주 수익원인 지방은행의 수익이 감소한 이유가 크다. 시중은행이 지방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카카오펌크 등 인터넷은행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계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주택담보대출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성규, 간담회·치맥으로 소통... 조직문화 혁신 첫걸음

(KEB하나은행장)

'소통과 공감' 생방송 간담회
 직원 건의사항 즉석으로 수락

KEB하나은행은 지난 1일 오후 서울을지로 본점 강당에서 '은행장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생방송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평소에도 자유로운 토론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소통을 중요시 해 온 지성규 은행장은 형식적인 간담회를 지양하고, 200여명의 인근 영업점 및 본점 직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전국 영업점에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소통 행사였던 만큼 은행장 개인에 대한 이야기, 은행장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 은행장이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대화의 주를 이뤘다. 이날 간담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지성규 은행장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을 이어간 후 "묵



KEB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오후 서울을지로 본점 강당에서 '은행장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생방송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가운데)이 간담회 후, 인근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치맥을 함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묵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인정받고, 직원 스스로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최고의 디지털·글로벌 은행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독려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또한, 한정된 시간으로 아쉬움을 표현한 직원들에게 생방송 간담회의 정례화와 전직원을 위한 온오프 라인 소통

공간의 상시 개설을 약속했다.

지성규 은행장은 간담회 이후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직원들과 치맥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한 직원이 "본점 도서관과 피트니스 센터의 24시간 이용을 희망한다"고 건의하자, 지성규 은행장이 "좋은 시설을 보다 많은 직원들이 오랜 시간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며 즉석에서 흔쾌히 수락했다.

지성규 은행장은 "직원들이 겪는 고충을 빨리 파악하고 이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은 은행장의 중요한 소임이다"며, "부지런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해 혁신을 발판으로 한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월 21일 취임한 지성규 은행장은 취임 당일부터 영업점 2곳을 시작으로 발빠른 전국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후 6개월 안에 전국 영업본부 지점장을 모두 만날 예정이며, 원거리 근무 직원을 위해 지난 3월 말 영남영업그룹을 가장 먼저 방문해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지성규 은행장은 진정한 혁신은 소통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오랜 믿음을 몸소 실천하며 직원들과의 자연스러운 스킵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갈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KB금융그룹
 금융권 첫 법인고객 우대
 '그룹 법인 KB스타클럽'

KB금융그룹은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그룹통합 법인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그룹 법인 KB스타클럽' 제도를 신설했다.

2일 KB금융에 따르면 KB스타클럽 제도는 그룹 내 은행, 증권 등 주요 거래사 거래 실적을 합산해 선정된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인고객에 대해 그룹 차원의 통합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은 금융권 처음이다.

은행·증권·손해보험·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총 6개 계열사의 법인 고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 등급은 MVP·로열·골드스타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고객 등급은 퇴직연금, 급여이체를 포함한 은행의 모든 거래, 증권사의 주식 평가금액, 손해보험사의 납입보험료, 카드사의 카드 이용금액 등 거래실적을 합산해 정해진다.

법인 스타클럽 고객에게는 각종 금융 거래 수수료 면제·감면 등의 금융서비스 혜택은 물론 컨설팅, 자산관리, 사업 지원, 정보제공 등 비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법인 고객 우대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고객과 KB금융그룹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카드 창립 6주년 기념식

손태승 회장 "선도 카드사로 도약 그룹사 시너지 한 차원 끌어올려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융그룹의 실적이 비은행 계열사에 의해 판가름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지주제 전환을 계기로 그룹사 간 시너지를 한 차원 끌어 올려야 하며, 우리금융그룹도 카드사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회장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더케이아트홀에서 열린 우리카드 창립 6

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임원과 우리카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카드의 지난 6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선도 카드사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은 "치열한 카드시장에서 이뤄낸 6년 동안의 성과와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 1200만 고객



1일 광화문 우리카드 본사에서 진행된 '창립 6주년 기념식'에서 손태승(왼쪽에서 다섯번째)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원재(왼쪽에서 네번째) 우리카드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창립 축하를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카드

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카드의 도약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이 1등 종합금융그룹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뤄내는데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